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생활 개선 방안

→ 길 생활 동물들의 안전보장과 동물권 인식 함양

: 스타타워 근처에 사는 길 고양이가 있다. 타워냥이라 불리며 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고양이가 생활하는 곳이 길인 만큼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 위험에서 조금은 벗어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① 타워냥이의 안전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

→ 지금 타워냥이의 보금자리로는 안전하고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 외부의 타격이나 위협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가 왔을 시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고
봉사 시간을 주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② 타워냥이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만든다.

→ 타워냥이의 건강 상태와 섭취하여야 하는 것들을 누가 언제 주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밥과 물 약 등을 주는 사람을 요일, 시간 별로 주는 사람을 신청하도록 한다.

타워냥이의 건강을 위한 계좌 설립과 해당 계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후원, 배식을 하는 사람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 고양이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이다.

③ 타워냥이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타워냥이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 등을 부착한다.

→ 타워냥이의 이동경로를 알기 위해 일정 시간동안 타워냥이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에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파악한 경로를 토대로 안전을 위한 표지판 등을 부착한다.

또 이를 토대로 타워냥이의 몸에 부착한 카메라로 보이는 길들을 나열하여 타워냥이의 이동경로로 전주대 캠퍼스를 투어하는 식의 지도를 만들어 학교 홍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것을 한다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점은 타워냥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인데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다면 타워냥이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타워냥이뿐 아니라 많은 길에 사는 동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생활을 구축한다. 앞서 말한 활동을 학교에서 주도해서 한다면 학생들은 길 위에 사는 동물들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동물권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학생들 운동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동을 좋아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또 운동을 시작하기 부담되는 학생들이 운동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프로그램

(1) 여자축구, 여자 야구 등의 종목에 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주말에 2시간씩의 운동 참여 시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축구나 야구 수업을 듣는다

-현재 여자 축구 리그에서 팀은 8팀이며, 초중고, 대학교 소속의 여자축구팀의 수는 남자축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유소년 축구팀의 경우 선수 확보 자체가 안되어 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경기 실적이 좋아도 선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팀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여자축구에 대학 팀 하나가 더 생긴다면 꽤나 큰 힘이 될듯하다.

-2018년 전주대학교에 여자축구팀이 생긴 적이 있다

(스포츠 지니어스 [김현희] 두 경기 33실점, 전주대의 대단한 도전) 기사에는

이는 자발적인 학생들의 동아리였다. 전주대는 남자 축구부가 꽤 유명하고 축구학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나 엘리트 체육을 하는 남자 선수들, 그리고 축구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의 이야기다. 여자 축구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축구학과도 남학생 들로만 구성돼 있다. 전주대학교에 여자 축구 동아리가 생긴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있던

여학생들부터 친구를 따라온 이들, 그냥 대학 생활을 하는데 추억 좀 쌓아보고 싶은 이들까지 다양하게 모였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기사에 내용처럼 전주대 축구부는 유명하나 여자가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축구부는 없었으며 2018년도에 생긴 팀도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안다.

에브리 타임이라는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전주대 여자축구부가 대회를 나간 적 있는 것을 아니냐는 질문에 1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으며 댓글 모두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 숫자로 확정을 지기는 어렵지만 여자축구부가 생긴 적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의 경우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축구부를 찾던 중 기사를 읽었기에 알았지 학교 홈페이지 학교 커뮤니티 어디에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한번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팀이 아닌 꾸준히 활동 가능한 팀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측에서 여자 축구팀을 만들고 훈련을 시킨다면 여학생들의 운동량 증진뿐만 아니라 좋은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 순천향대의 경우 충남아산프로축구단에서 도움을 받아 2019년 한해동안 매주 1회씩 여학생들이 훈련을 받았다, 순천향대의 경우처럼 외부 팀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축구팀의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나라에서 여자축구 증진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처럼 나라에서도 여자축구 증진을 위해 힘쓴다. 이 시류에 전주대가 탑승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뿐 아니라 학교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초, 중, 고 등학교에서 여자 야구 팀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수준으로 찾기 어렵다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사회인 야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로 전문적으로 야구만을 하는 선수는 드물다.

한 선수는 자신의 팀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20살 30살에 야구를 시작했다며 어린 나이부터 야구를 시작하여 해당 교육과 운동을 쪽 해오는 경우가 없다 하였다. 여자야구 선수로 많은 관심을 받은 김라경, 박민서 선수들의 인터뷰나 영상을 보면 리틀 야구단에 여자선수는 그들뿐이 없을 정도로

야구를 하는 여자는 많지 않다

한국프로야구 출범 당시 의학적으로 남성이 아닌 자는 부적격 선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1996년

이 문구는 규약에서 사라진다.

허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나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몰랐다

또한 대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여자팀이 많지 않다. 전주대에서 팀을 만든다면 여자 생활운동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과거 남성이 하는 운동이라 불리던 운동인 야구와 축구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인식의 변화에 앞장서는 전주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쉽게 접하고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 이를 통한 집중력 향상 행복감 증진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입생 모집에도 홍보한다면 신입생이 다른 학교와 전주대를 비교하여 고민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전주대에 원서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전주대의 장점이 될 것이다.